

지자체 테마공원·농공단지 ‘묻지마 추진’

보성 농어촌 공원·담양 대나무공원·강진 농공단지 등 감사원, 경제성 조작·상급 심사 생략 등 ‘위법’ 적발

보성군과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등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신규 테마공원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무리한 사업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위법행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방재정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15일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없는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의 문제를 감사한 11개 광역지자체와 관할

시·군·구 대상 ‘지자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보성군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조사 수행업체를 압박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 결과를 왜곡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았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 탈락됐어야 하는 사업에 국비가 낭비된 것이다. 감사원은 보성군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담양군은 지난 2013년 10월 총사업비 1494억 원이 소요되는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두

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다. 비용편익비를 1.11로 산정한 것이다. 비용편익비는 1 이상이어야 사업추진조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불리한 것은 임의로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부풀렸다. 감사원이 재점검한 결과, 이 사업은 비용편익이 0.68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군도 지난 2010년 5월 3일 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률이 0%인데도, 100%인 것처럼 심사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적발됐다.

이 사업은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개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전남도는 무안~몽탄 간 등 지방도 건설사업을 부처정하게 추진하다가 적발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교통량이 하루 7100대를 넘어야 하는데, 해당 확장도로 구간은 현재 하루 교통량이 5654대에서 3985대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감사인력 32명을 동원,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하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계획단계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부문은 시설규모·재원조달 가능성·경제성·시급성 및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호남 초등생들 손편지로 우정 나눈다

섬진강 느랭이골 ‘달빛 우체통’ 설치

영호남 어린이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달빛 우체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나눈다.

15일 (사)손편지운동본부에 따르면 오는 20~22일 광양시초등학교와 경남 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각각 써서 섬진강 인근 광양시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에 설치한 달빛우체통에 넣는 행사를 벌인다.

‘달빛 우체통’은 손편지운동본부가 영호남 학생들이 서로 손편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느랭이골에 설치한 ‘영호남 화합’ 우체통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이 우체통에는 ‘공평하게 지역을 비춘다’는 의미에서 ‘달빛 우체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손편지운동본부는 영·호남을 잇는 최초의 다리 ‘섬진교’가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 느랭이골에 달빛우

체통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하동초교 전교생 560여명이 광양시초교생들에게 손 편지를 써서 느랭이골 달빛우체통에 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 편지를 전달받은 광양시초교 전교생 370여명이 22일 오전 11시 답장을 써서 달빛우체통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손편지운동본부는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광주 송원초교와 대구 영신초교의 편지 교환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영호남 전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손편지 쓰기 운동을 확산해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근오(58) 손편지운동본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편지쓰기를 통해 아이들이 친구를 맺고 체육·문화 등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전남쌀 5.9% ↑
올 생산량 85만7224t
재배면적 0.4% 늘어나

올해 전남산 쌀 예상생산량은 85만7000t으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전남지역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 쌀 재배면적은 17만185ha로 전년 16만9585ha에 비해 0.4% 늘어났다. 해남군 영산강 지구 등 대규모 간척지의 신규 논벼 재배(870ha)로 면적이 증가했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81만6000ha에서 79만9000ha로 2% 줄었다.

전남 쌀 생산량은 85만 7224t으로 전년도 80만9201t에 비해 5.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쌀 생산량은 2009년 91만 3000t에 달했으나 매년 줄어 2012년에는 70만t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85만7000t), 충남(82만8000t), 전북(68만t)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특히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2014년 478kg에서 올해 505kg으로 5.7%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최고 기록이긴 하지만 전국 평균 533kg보다는 적다.

10a당 생산량은 생육 전반에 걸친 기상조건 양호와 병충해, 태풍 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이삭 수 및 낱알 수 증가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지역발전 분과위원회 출범식이 15일 오전 나주시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이전기관 분과위원, 대학교수, 연구기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성장거점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 힘 모으자”

공공기관장 협의회 지역발전 분과위원회 출범

전남도와 광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기구인 ‘공공기관장 협의회 지역발전 분과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 실행을 위한 조직이 갖춰지면 상호 성과에 지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분과위원회 출범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해 분과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범식 직후 ‘빛가람 성장포럼’과 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지역발전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출범 당

시 특별법 입법과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공간적 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할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고, 이전기관의 역할 추진 사업과 혁신도시 성장 거점화 과제 등으로 추진할 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는 시·도 전략사업과 이전기관의 역할을 결합해 동반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혁신도시와 지역 연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비롯해 14개 기관이 이전에 6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공무원교육원 부지 신청 ‘과열’

17개 시·군 23곳 접수

전남도내 17개 시·군이 23곳의 후보지를 전남도공무원교육원 부지로 신청했다. 과도한 유치 경쟁에 따라 12월 초 선정 이후에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은 세부지표를 균형발전 기여도(25점), 이전비용(20점), 개발용이도(20점), 접근성(20점), 교육환경(15점)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이들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는 각계 전문가 평가단 풀(모집단) 100명 가운데 각 시·군이 타구공 추천 방식으로 선별한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맡게 된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16일부터 20일간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등 3~4명과 함께 현지조사한 뒤 이를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평가단을 지역개발·도시계획·건축 전문가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5명, 수도권 출신 5명으로 구성해 평가에 공평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무술신 여성' 희망 33~67세</p> <p>'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6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휘트니스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